

한-EU FTA 발효 이후 대 EU 교역 증가, 투자 감소 현상 나타나

1. 한-EU FTA 발효 후 교역규모 증가

□ 우리나라의 대 EU 교역규모는 금융위기부터 증가추세 시현

○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교역규모는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. 한-EU FTA 발효('11년 7월)로 한-EU의 교역규모는 2011년에 1천 32억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음.

- 수출과 수입은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감소하고 있음.

* 세계 최대경제권인 EU는 한국의 제2교역상대국이며 EU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대 교역상대국임.

<표 1> 우리나라 대 EU 교역추이

단위: 억 달러

국 가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.1월	2012.2월
수 출 (한→EU)	560	584	466	535	557	39	46
수 입 (EU→한)	359	400	322	387	474	39	39
교 역 (수출 및 수입)	928	984	788	922	1,032	78	85
무역수지	201	184	144	148	83	0	7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

<표 2> 특혜관세 해당품목 중 수출증대 상위 5대 품목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 (기준세율%, 철폐시기)	수출액		증 감	
	2010.7~12월	2011.7~12월	증감률	증감액
제트유 및 등유(4.7, 즉시)	155	774	399.0	619
승용차(5~10, 즉시~5년)	1,520	2,935	93.1	1,415
건설중장비(0~4.5, 즉시~3년)	330	509	54.5	180
합성수지(0~6.5, 즉시~3년)	446	605	35.5	158
자동차부품(1.7~19, 즉시~3년)	1,740	1,981	13.8	241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폴란드주재원.

□ 대 EU 수출 4% 증가

- 2011년 한국의 대 EU 수출은 전년 대비 4.1% 증가한 55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 2011년 유럽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존 무관세 제품인 선박, 반도체 및 일부 가전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의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.
- 한-EU FTA 발효 후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제트유 및 등유, 승용차,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399%, 93%, 55% 증가하여 FTA 이후 특혜관세 혜택품목 중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.

□ 대 EU 수입 23% 증가

- 수입 관세철폐 및 원화강세(유로화 약세)로 인해 2011년 한국의 대EU 수입은 전년 대비 22.5%가 증가한 474억 달러를 기록했음. 특히 관세 즉시 철폐로 북해산 브랜트유가 신규 수입되면서 연중 원유수입액은 3억 달러를 기록함.
- 관세철폐로 인해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가축류로 전년동기 대비 125% 증가했으며, 그 다음으로는 원동기 26%, 승용차 24%, 자동차부품 18%의 순으로 나타남.
- 향후 관세 철폐 품목이 확대될 경우 EU의 농산물, 와인 등의 수입증가 품목 또한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.



<표 3> 특혜관세 해당품목 수입증대 상위 5대 품목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 (기준세율%, 철폐시기)	수입액		증 감	
	2010.7~12월	2011.7~12월	증감률	증감액
원유(3, 즉시)	0	337	-	337
가축육류(3~72, 즉시~15년)	156	352	125.2	196
원동기(0~8, 즉시~5년)	449	564	25.8	116
승용차(8, 즉시~5년)	1,093	1,359	24.3	266
자동차부품(8, 즉시~3년)	745	881	18.3	136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폴란드주재원.

2. 대 EU 투자실적은 오히려 감소

- 우리나라의 EU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7년 31억 달러에서 2008년 19억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9년에는 28억 달러, 2010년에는 5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- 우리기업은 2008년도 하반기 이후 동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영국, 독일 등 서유럽 지역으로 투자를 확대했으나 2011년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전역으로 확대 되면서 폴란드 등 일부 동유럽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EU 회원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됨.
 - 2011년 우리나라의 대 EU 직접투자실적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29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한-EU FTA 발효 이후 투자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.
- 한편, 2011년 하반기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상반기보다 증가하여 2011년 EU의 대 한국 투자액은 전년보다 18억 달러 증가한 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1인당 투자규모도 2010년 800만 달러에서 2011년 1,300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 되었음.
 - 한국은 한-EU FTA 이후 EU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으며 EU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체결 추진중인 ASEAN, 미국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【서 은 주】